

'잘나가는' 일터불자회 배운다

2년 미만 불자회를 포교아이템 · 운영노하우 벤치마킹



그림 / 김영민

최근 들어 직장·직능불자회들이 '잘나가는' 일터불자회의 성공사례를 닮은 벤치마킹이 늘고 있다. 대부분이 창립을 준비하는 직장불자나 설립 2년 미만의 불자회들로, 목록 뒤는 포교아이템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는 등 이 같은 움직임이 주도되고 있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은 경영전략기법 중 하나로,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경쟁업체의 제품, 조직의 강점을 분석해 배우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불자회가 이처럼 모범 불자회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창립 초기의 빈약한 조직을 단기간에 완비하고, 향후 불자회 운영모형을 중견 직장불자회에서 찾기 위해서다. 또 기존 동일 직종의 불자회가 벌이는 사이버 조직운영기법, 회원 늘리기 방법, 문화 이벤트 법외 등 근무여건에 따라 적용해보려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난 2001년 창립한 전북 장수군청 불자회는 올 5월부터 사이버 공간에 '장수공무원불교모임(cafe.daum.net/jangbull)'을 개설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세무사불자회,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 20여 곳의 직장불자회들이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포교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강원 원주경찰서 불교회 등도 마찬가지다. 또 마산시청 불자회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마련해 회원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장 동료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올 4월 창립한 경기 양평경찰서 불교회는 올해초부터 경찰청 불교회가 매달 친불가 배우기·정근·참선 등 주제별 법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화이벤트 법외를 마련키로 했다.

전문직 불자회도 예외가 아니다. 올 4월 출범한 감정평가사 불자회는 전문직 특성을 살린 사회봉사활동으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선재마을의료회, 불자약사보리회, 사법연수원 다름법우회 등이 그간 벌여온 무료 진료 및 법률상담을 자체 평가하고, 이들 자료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근거자료로 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계종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직장불교 모범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종재에 반영하고, 전국 직장불자회에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향후 추진 일정은 9월말 공모자 참여법외, 10월 불자회 단장과 내부 검토, 12월 최종 세부계획안 마련 순으로 진행된다.

사 례

#1. '출법 3년차, 전국 산하단체 206개, 회원수 1만여 명, 단위 기관 불자회·개별 회원 등 조직구성의 다양성 확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단기간에 가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동일 직종의 직장불자연합단체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2. 7월 27일, '제3회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를 개원한 선재마을의료회. 그간 자체 활동평가, 지속적인 봉사활동 전개 등 책임 있는 조직 운영 노하우를 선보이며 전문직종 불자회의 대표적인 실행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충남 논산경찰서 불교회가 창립된다.

불교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최석기, 이하 준비위)는 최근 경승실 개원식과 불상 점안식을 병행하고, 이달 중순경 '교통사고와 번사자 천도법회'를 결합 창립법회를 병행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현재 준비위는 지난 달 초부터 전체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에 들어가 5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초대 경승실장에 논산 지장암 주지 창법 스님(법명종 총무원장)을, 경승위원으로 대둔산 영주사 주지 풍운 스님, 관촉사 주지 탄우 스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충남 논산경찰서 불교회 창립된다

회원 50여명...중순경 법회 경승실장 창법 스님 추대

준비위는 우선 회원들의 3교대 근무 여건 등을 고려, 점심시간을 활용한 정기법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종교가 없는 80여 명의 직원들을 위해 꽃꽂이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해 불교회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준비위는 전체 직원의 40%가 논산 지역 거주자인 점을 감안해 매달 관내 사찰 순례법회를 병행하기로 했다.

불교회 창립준비위원회 최석기 위원장(48·정보과장)은 "지금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신인 회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불교를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법회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창립초 빈약조직 단기간 보강 겨냥

이들 불자회가 이처럼 모범 불자회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창립 초기의 빈약한 조직을 단기간에 완비하고, 향후 불자회 운영모형을 중견 직장불자회에서 찾기 위해서다. 또 기존 동일 직종의 불자회가 벌이는 사이버 조직운영기법, 회원 늘리기 방법, 문화 이벤트 법외 등 근무여건에 따라 적용해보려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난 2001년 창립한 전북 장수군청 불자회는 올 5월부터 사이버 공간에 '장수공무원불교모임(cafe.daum.net/jangbull)'을 개설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세무사불자회,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 20여 곳의 직장불자회들이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포교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강원 원주경찰서 불교회 등도 마찬가지다. 또 마산시청 불자회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마련해 회원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장 동료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올 4월 창립한 경기 양평경찰서 불교회는 올해초부터 경찰청 불교회가 매달 친불가 배우기·정근·참선 등 주제별 법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화이벤트 법외를 마련키로 했다.

전문직 불자회도 예외가 아니다. 올 4월 출범한 감정평가사 불자회는 전문직 특성을 살린 사회봉사활동으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선재마을의료회, 불자약사보리회, 사법연수원 다름법우회 등이 그간 벌여온 무료 진료 및 법률상담을 자체 평가하고, 이들 자료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근거자료로 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계종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직장불교 모범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종재에 반영하고, 전국 직장불자회에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향후 추진 일정은 9월말 공모자 참여법외, 10월 불자회 단장과 내부 검토, 12월 최종 세부계획안 마련 순으로 진행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불교 연구와 보살도 실천'이 짧은 문구가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지난 1988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아래 지금은 회원들이 2천 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저마다의 전공,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연구실 안에서 연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강의실에 들어서면 강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법보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자 노력합니다.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입니다. 우선 사단법인 등록은 앞으로 우리회의 활동에 공신력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2002 한국교수불자대회'는 그동안 실행·학술의 두 분야를 하나로 엮어내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앞으로 우리회의 활동방향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석학들을 모시고 강원도 백담사 만해문화기법원에서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제1회 동아시아교수불자대회'를 갖습니다. 대회는 '동아시아 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공공체와 불교 △과학과 불교 △문화에

회원수 2천여명...작년 사단법인 등록

백담사에서 첫 東亞 교수불자대회 추진



한국교수불자연합회원들이 지난 2002년 8월 강원도 백담사에서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강연회를 열고 있다.

계 보살도를 제시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아가 뜻을 함께하는 다른 단체와 더불어 여러 사회운동에 동참해왔습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진정한 보살도의 실천은 바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립초기부터 여류법학을 이용해서 회원들이 실행을 함께 하는 시간을 여러 차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을 바로 우리들 스스로의 몸이 되살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이러한 여러 노력들을 바탕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일궈냈습니다. 하나는 사단법인으로 거듭났고, 다른 하나는 '2002

승과 불교 △사회와 불교 △종교 문화와 불교 등 총 5개 분과별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각국의 불교가 왜 차이점을 띠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밑바닥 깊이 흐르는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참가교수불자들은 대승 및 남북불교관별로 자국의 불교 전래와 현황을 실은 '나라별 리포트'를 제출하고, 전공 분야별로 현대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공동대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대회는 창립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현대문명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범 아시아적으로 확립하고 넓혀가는 것입니다.

연기영 회장

우리 모임에선



сут타니파타 교리강좌 열어

전국교수불자연합회 충남 대전지부(회장 여성구·사진)는 7월 28일 대전 보문고등학교 법당에서 김홍섭 교법사에게 <сут타니파타> 교리강좌를 들었다.



법광 스님 '초발심 자경문' 강의

안동교도소 불심회(회장 김성배·사진)는 24일 안동 법음사에서 주지 법광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 교리강좌를 들었다.



'초발심자경문' 교리 수강

철도청 서울 성복승무사소 법우회(회장 박우락·사진)는 19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주지 상현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교리강의를 들었다.



경주 일대로 '달빛기행' 떠나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회장 이인규·사진)는 9~10일 이틀간 경북 경주시 일대로 문화유적답사 '달빛 기행'을 떠났다.



무료법률상담 희망식 가져

사법연수원 34기 다름법우회(회장 이만덕·사진)는 7월 18일 서울 조계사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 활동 희망식을 가졌다.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인 업장 덩어리를 녹이며!

주말 수행 체험 이야기

- ◆ **중단전차크라** (가슴명치) 막힌 지옥 덩어리를 시원하게 뚫어주며 일주일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신비로운 도인계조를 단 한번으로 배우고!!!
- ◆ **독경염불** 의 들숨시 호흡과 어깨를 들먹거리고 자세 불량으로 거꾸로 호흡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바른자세와 호흡법, 운율법을 배워 진정한 수행과 행복이 시작된다.
- ◆ **자등단전호흡** 은 참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수행으로, 수행 자라던 누구나 배워야할 단전호흡이 일체 무리없이 저절로 되어 일할때나, 쉬거나, 잠잘때 그대로 적용되어 생활 뿐이 절로 됩니다.
- ◆ **와선** 단 20분의 투자로 세상 살맛이 난다. 즉석에서 완전한 이완과 에너지 증진의 확실한 체험을 하게되며 초종초종 빛나는 두뇌와 와선의 진가를 말해준다.
- ◆ **행선** 복잡한 머리가 상쾌하고 맑아지며, 갇혀있던 어깨가 가벼워 진다.
- ◆ **업장소멸진침회**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업장을 지우고 부처님께 바친다.
- ◆ **호흡에 맞춰서 절하는법** 숨차지 않고, 험막거리지 않고, 맥박이 빨라 지지 않는 호흡에 맞추어 절하는 법을 배워 완전한 수승화강이 된다.
- ◆ 소리산의 정상(壽世봉)에 올라 출세를 다짐하며!!!!
- ◆ **수련일시** : 매주 토요일 : 저녁 8시~12시, 12시취침 ~
- ◆ **일요일** : 아침 5~10시(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3333배 월야정진 합니다)
- ◆ **준비물** : 간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구, 절을 기쁘게 할하는법 읽고 올것.

백만불자 108배 만일정사 수행중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http://cafe.daum.net/sorisan

○오시는길 : 상봉터미널 - 청평역-설악면-모곡중점 하차 전화요
동서울, 상봉터미널 - 양평 - 용문 - 단원 하차 전화요

○차량 : 양평에서 흥천방향 - 용문터미널 - 단원 - 대명비발디파크 입구에서 정령 방면으로 6km 지점 - 석산주유소앞 - 소향산정 - 법왕정사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운림佛字체'

반야심경 8품 병풍 후면 담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법행사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 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사(불자 운장)

운장대승도량 설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0-11 한국수련과 복지 후원회(100% 호교)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 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21.net
*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백운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주목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거나 본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백운산 운장사**
韓國佛教藝術文化院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례 정책'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할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할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할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할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할

[장안낙원 지원사항]

- 전체시설의 절반을 투자비용 없이 보유가능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안전지 저가 보급
- 장안낙원의 분점으로 분양행사 지원
- 각종 제사 유치로 부대수입 기대

해결방안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주 최 : 장안사 장안낙원 협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